

종합·해설

전국 지자체 “관람객 유치 적극 돕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관람객 유치를 돕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여수세계박람회 D-22

16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서 결의

행정안전부는 19일 여수 박람회 국제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여리는 ‘지자체의 날’에 다양한 전문민속 놀이와 예술·문화공연을 선보이기로 했다. ‘지자체의 날’에는 광역 시·도와 일선 시·군 등 57개의 지자체가 참여한다.

일선 시·도 차원에서 입장권 예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광고 등 지자체의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박람회를 알리기로 했다.

또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각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 중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G 20 정상 회의를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경제·안보 선진국으로 세계에 각인시켰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핵안보정상회의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시 한 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수 엑스포의 성공 개최의 관건은 국내외에 ‘봄’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여수 엑스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를 노후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5월 말부터 ‘북콘서트’ 형식의 릴레이 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했다. 김 지사는 5월26일 경남 창원, 6월 2일 광주, 6월15일 서울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연다. 서울과 광주 등에 사무소를 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를 두고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권 대권주자들 행보 빨라진다

문재인 “출마 결정시기 임박했다”

손학규 “6월 전대 직후 캠프 가동”

김두관 6월 2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4·11 총선 후 야권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총선 패배에 따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칫 주변 환경만 주시하다가는 국민적 관심에서 더욱 멀어져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19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 고문은 전남 라디

오 방송에 출연해 “정권교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할 때가 됐다. 가급적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문 고문은 ‘낙동강 벨트’의 패배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으나,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고문이 안원장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문 고문 측

은 총선을 앞두고 안 원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의했고, 최근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안 원장과 힘을 합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상임고문은 오는 22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하며 정책행보에 나선다.

유럽 국가들의 노동·복지·교육정책을 살펴보고 대선을 위한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다. 또 박사 학위를 받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손 고문은 6월 전당대회 직후 대선 캠프를 본격 가동하고, 조만간 경제정책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지난해 발간한 분수경제론을 기초로 각종 정책 공약

을 가다듬고 있으며, 서울 종로 당선을 발판삼아 대선캠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비록 총선에서 패배해 치명상을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비정규직 철폐 등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좌클릭’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리를 노후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5월 말부터 ‘북콘서트’ 형식의 릴레이 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했다. 김 지사는 5월26일 경남 창원, 6월 2일 광주, 6월15일 서울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연다. 서울과 광주 등에 사무소를 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를 두고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국을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1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진핑 “中 관람객 많이 찾게 하겠다”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여수엑스포 지원 약속

중국을 방문중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만나 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 홍보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19일 오후 5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차기 최고권력자로 사실상 확정된 시 부주석을 만나 “박람회에 많은 중국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부주석은 “상하이 엑스포를 지원해준 한국과 한국민의 우정을 잊지 않고 있다. 많은 중국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40여분간 진행된 이날 대화에서 시 부주석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시 부주석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이었다. 지난해 양국 교역만 220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에 8만명의 한국 유학생이 현재 체류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로 더욱 경직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시 부주석은 “남북은 원래 형제였기 때문에 서로 반복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

국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차기 최고권력자로 낙점된 시 부주석은 지난 2005년 전남도가 중국 저장성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저장성 당서기로 있던 시 부주석이 먼저 전남도를 방문하자 박 지사가 11월 담방형태로 저장성을 찾았다. 2007년에는 박 지사가 여수엑스포 유치 협력을 위해 상하이시 당서기로 옮긴 시진핑과 만나 상하이시 재개발 계획지구에 포함된 상해임시정부 청사 준치를 부태해 상사시키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수서發 KTX 민영화’ 강행

정치권·철도노조 등 반발 거셀듯

국토해양부가 19일 목표~수서 구간이 포함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해 KTX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상반기 중 선정되며, 15년간 선로임대방식이 이 노선을 운영한다. 요금은 기존 KTX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

공모(30%),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된다. 대기업의 참여에 대해 제한된다.

철도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40%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많은 선로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이번 KTX에 국한 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해양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왔던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이날 발표함에 따라 정치권과 철도노조 등의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원내대표 출마 선언

“계파갈등 잠재우고 정권탈환 힘쓸 것”

광주·전남지역 최다선(4선)인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예정자 가운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족한 제가 다음달 4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며 “외롭지만 제가 그 일을 맡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에는 의원들이 계파나 진소보다는 당을 위한 총정과 정권탈환의 염원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당면과제로 ▲다수 국민의 신뢰 회복 ▲당내의 계파 논쟁을 잠재우고 진정한 통합을 완성 ▲오랜 당원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 세력에 대한 배려 등을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대선출마 말도 안돼”

일부 언론 보도 관련 부인...당권은 고민 중

이해찬 전 국무총리 측은 19일 이 전 총리에게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총리의 대변인 격인 오종식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이 전 총리는 확실하게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 대선출마 검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총리는 야권에 대

선주자로 손색이 없는 분이 많아서 본인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총리의 관심은 야권 대선주자를 위한 판을 잘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 전 총리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rticle Number, Title, Location, Price, etc. Includes sections fo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and '매각 물건'.